

북원과 고려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우왕대 관계를 중심으로-

1. 북원에 대한 고려의 외교노선 변화

북원과 고려 관계는 크게 '공민왕대 관계'와 '우왕대 관계'라는 두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공민왕대에는 원과 명이 각축을 벌이는 틈을 타 고려는 자주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펼쳐 나갔다. 1369년 공민왕 정권은 원과 관계를 단절하고, 명과 사대관계를 수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 영토를 정벌하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민왕의 이러한 조치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성급한 판단이었다. 그러면서도 공민왕은 사실상 북원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한 양단 관계를 맺었다.

1372년을 전후한 시기에 북원은 내외정 안정을 회복하여 고려에 대한 외교활동도 활발히 하였다. 그러나 공민왕이 친명 정책을 고수하였기에 고려에 대한 회유정책이 실패하였다.

공민왕을 계승한 禡王 대부터 북원과 고려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공민왕이 시해된 뒤 북원이 심왕 톡토부하를 고려왕으로 임명했음을 보면 당시에 퍼졌던 북원이 국왕을 교체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친명 외교 노선을 고수했던 공민왕이 1374년 9월 시해된 뒤, 공민왕이 주도했던 친명 외교 노선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¹⁾

공민왕이 시해되고, 동년 11월쯤 貢馬 징발하러 고려에 파견되었던 명나라 사신 林密, 蔡斌 등이 돌아가는 길에 開州站에 도착하였을 때 護送官 金義가 명 사신인 蔡斌과 그 아들을 죽인 다음 林密을 붙잡아 북원으로 도망간²⁾ 사건이 일어났다. 명에 請諡·承襲使, 告訃使로 파견되었던 사신들은 이 사건을 듣자 충도에서 귀환하였다. 이로써 고려와 명 사이의 우호관계는 사실상 단절되었다. 이후에도 명의 문책을 두려워한 관리들이 사신으로 가지 않으려 함으로써 고려는 공민왕 시해와 명사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적절하게 해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왕의 왕위 계승을 통보하고 그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워졌다.

1374년 11월 나가추가 문하라부하를 보내 낙타 두 마리와 말 네 필을 바쳤는데³⁾ 이것은 공민왕이 시해된 이후로 북원에서 처음 온 사신이었다. 아마도 북원은 이 사신을 통해서 공민왕 死後 고려 정세를 파악하려고 하였을 듯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2월에는 李仁任 정권에서는 判密直司事 金湑를 북원에 보내 공민왕의 喪事를 고함으로써⁴⁾ 공민왕의 시해 사실은 명보다 북원에 먼저 통보되었다. 우왕 즉위 후 이인임 정권에서는 명과 북원 모두를 事大의 대상국으로 인정하고 우왕 책봉을 요청하였다. 즉 공민왕 말기의 친명 일변도의 외교노선에 변화가 있었다.⁵⁾

그러나 김서를 북원에 보낸 일은 공민왕의 상사를 고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는 우

1) 김순자, 『韓國 中世 韓中關係史』, 혜안, 2007, 82쪽.

2)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1, 11월.

3)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1, 11월.

4)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1, 12월.

5) 김순자, 앞의 책 (2007), 83-84쪽.

왕 책봉과는 무관하였다. 상사 고향과 왕위 계승 승인에 대한 요청은 별도의 일이었다. 즉 공민왕 상사를 알리는 동시에 공민왕대까지 계속되었던 친선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렇게 선제 사신을 파견한 일을 복원이 역이용하여 우왕 책봉에까지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벌어진 일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우왕 元年(1375) 정월에 나가추가 사자를 고려에 파견하여 정식으로 관여하였다. 즉 나가추는 '전왕은 아들이 없는데 지금 누가 왕위를 이었는가?'라고 물었다. 나가추의 이 질문은 이 때 복원은 공민왕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므로 심왕 髙의 손자 특토부하를 봉하여 고려왕으로 이미 삼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인임 등은 비록 명·원 모두에 대한 양면외교 노선을 택하였으나 왕권 자체를 복원의 요구대로 하기에는 반대하였다.

동년 4월 이인임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孝思觀에 나아가 태조의 혼령께 맹세하기를, '본국의 무뢰배들이 심왕의 손자를 끼고 북쪽 변방에 와서 왕위를 엿보니, 우리 동맹하는 신하들은 힘을 다하여 막아서 새 임금을 돕고 받들겠나이다. 이 맹세에 변함이 있으면, 천지와 종묘 사직이 반드시 은밀한 주벌을 내린다.'⁶⁾고 하였다. 즉 이인임 등은 심왕을 고려왕으로 옹립한 사건에 반대하여 자기들이 추대한 우왕의 지위에는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책이었다.

같은 달에 판사 朴思敬이 복원에서 돌아와 明德太后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나가추의 말에, '너희 나라 재상이 김의를 보내어 왕이 죽었는데 후사가 없으니 심왕을 받들어 왕으로 삼기를 원한다고 청하기에 황제께서 [심왕을] 봉하여 너희 임금으로 삼았다. 만일 전 왕에게 아들이 있다면 조정에서 반드시 심왕을 보내지 않겠다.' 하였습니다.⁷⁾

이 말을 들은 공민왕의 어머니 명덕태후가 이인임을 불러 '재상이 김의를 원나라에 보냈다는 말은 내가 들은 지가 오래다. 경들은 알지 못하는가.'⁸⁾라고 물었다. 여기서 언급되는 박사경을 언제 복원에 보냈느냐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복원으로 파견된 김서의 副使로 보는 견해⁹⁾가 있다.

때 마침 명의 사신을 죽이고 복원으로 도망간 김의의 부하가 고려에 돌아왔는데 이 때 이인임과 安師琦는 그를 후하게 대접하였다. 이를 본 朴尙衷은 임금에게 글을 올렸다.

김의가 사신을 죽인 죄를 응당 추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상들이 범인의 수행원들을 후하게 대우했음은 안사기가 김의를 사주하여 사신을 죽인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곧 그 죄를 밝히지 않으면 나라의 재앙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¹⁰⁾

6) 『高麗史節要』 권 30, 辛禡 원년 4월.

7) 『高麗史』 권 126, 列傳 39, 姦臣 2, 李仁任: “納哈出謂臣言, 爾國宰相, 遣金義請云, 王薨無嗣, 願奉瀋王爲主故, 帝封爲爾主. 若前王有子, 朝廷必不遣瀋王也.”

8) 『高麗史節要』 권 30, 辛禡 원년 4월: “太后召仁任曰, 宰相遣金義如元, 予聞此言久矣. 卿等獨不知乎.”

9) 池內宏, 『高麗末における明及北元との關係』 『史學雜誌』, 29-1, 2, 3, 4/ 1917, 『滿鮮史研究』中世 第三冊, 1963, 282面.

10) 『高麗史』 권 112, 列傳 25, 朴尙衷: “尙衷上疎曰: 金義殺使之罪, 在所當問, 宰相待其從者甚厚. 是師琦嗾義殺使, 其迹已見. 今若不正其罪, 社稷之禍, 自此始矣.”

이 상소를 오래 내려 보내지 않았다가 이때에 와서 태후가 그 상소를 都堂에 내리고, 또 안사기를 옥에 가두게 하였다. 안사기가 남의 집으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칼을 뽑아 목을 찔렀고, 이어서 안사기를 베어 죽였다.¹¹⁾ 이 사실을 지켜 보던 이인임은 ‘김의의 원나라 파견은 贊成事 康舜龍, 知密直 趙希古, 同知密直 成大庸 등이 한 짓이다.’ 하여, 그들을 모두 먼 땅으로 귀양 보냈다.¹²⁾

이어 동년 4월 고려는 判密直 李子松을 西北面 都巡問使 겸 平壤尹으로, 贊成事 池淵을 西北面 都元帥로, 門下評理 柳淵을 東北面 都元帥로 임명하고 각 도의 병정을 징발하여 북원의 침공을 방비케 하였다가 얼마 후에 국경 정세가 평안하다는 정보를 받고 곧 중지하였다.¹³⁾

고려는 다만 대외적으로 압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심왕에 협력할 소지를 갖춘 인물들이 고려 국내에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僧 小英이 자기 수하 몇 명을 북방에 보내 비밀리에 심왕에게 서신을 전하여 ‘이제 나라의 형편이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또 임금이 신하의 아침에 넘어가서 국권이 오로지 권세 있는 신하의 수중에 있으니 만약 이때에 군사를 인솔하고 오면 대사를 성취한다’¹⁴⁾고 하였다. 또한 우왕 원년 (1375) 9월에 泥城 원수 崔公哲의 휘하 2백여 명이 반란을 일으켜 軍民들을 살해하고 江(압록강)을 건너갔다.¹⁵⁾ 이 사례들은 우왕 즉위 초 친원세력의 활동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인임 정권은 어떤 대책을 써서라도 심왕의 고려국왕 옹립을 막아야 하였다. 1375년 4월 이인임은 백관과 함께 연명으로 글을 써서 북원의 중서성에 바치려 하였다. 그 글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본국은 세조 황제가 王業을 이룩할 때 우리나라 忠敬王이 선참으로 입조하여 황제의 은고와 귀 조정의 세습하는 왕들 및 부마들 예에 준하여 왕위를 받았다. 그리고 충렬왕에게 공주를 주어 駙馬를 삼아서 충선왕을 낳고 충선왕이 충숙왕을 낳았고 모두 왕위를 세습하였다. 그런데 英宗 황제 때에 江陽君 王滋의 아들 울제이투(完澤禿), 瀋王 嵩가 있었고 그는 우리나라 왕실의 支派로 갈려 내려간 자인데 왕위를 쟁취하려고 망동하였으나 귀 조정이 판별하여 주어서 실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先王 바얀테무르(伯顏帖木兒)는 바로 충숙왕의 친아들로서 습위하였으며 그 24년에 유언으로 그의 친아들인 元子 禰에게 습위하도록 지시하였다. 삼가 판밀직 金潛를 보내서 선왕의 訃音을 전하게 하였더니 그가 귀 조정에 갔다가 이제 와서 알게 되었는바 울제이투 심왕의 손자 脫脫不花(脫脫不花)는 우리나라로 출가 온 공주의 후손도 아니면서 엉뚱한 야망을 품고 왕위를 쟁취하기 위하여 날뛰고 있다. 이는 세조 황제가 제정한 바와는 크게 위반되는 일이니 금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¹⁶⁾

11) 『高麗史節要』 권 30, 辛禑 원년 4월.

12) 『高麗史節要』 권 30, 辛禑 원년 4월.

13)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禑 원년 4월.

14)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禑 2년 7월: “今國家, 臣弑其君, 主諛臣諂, 國柄專在權臣, 若引兵來, 大事可成.”

15)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禑 원년 9월.

16) 『高麗史』 권 126, 列傳 39, 李仁任 .

그러나 左代言 林樸, 典校令 朴尙表, 典儀副令 鄭道傳은, '선왕께서 계책을 결정하여 남쪽의 명나라를 섬겼으니, 이제 북쪽의 원나라를 섬긴다면 부당하다.' 하고, 서명하지 않았다.¹⁷⁾

즉 이인임 정권은 북원의 군사작전에 대비하는 동시에 외교로 타개하였으며 북원에게 고려왕으로 옹립한 특토부하를 폐위시키기를 요청하였다. 이 글은 북원에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이에 대해서 고려에서 문천식을 북원에 파견하여 이 글을 전달하였다는 추측이 있다.¹⁸⁾ 그러나 북원에서 우왕 2년 (1376) 10월 고려에 전달한 후흐테무르(擴廓帖木兒)의 서신에 '바얀테무르(伯顏帖木兒王)에게는 아들 모니노가 있었으며 나라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국사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초르지(抄兒志)로부터 알았다'고 하기 때문에 상기한 글이 북원에 전달하지 않았을 듯하다. 초르지는 우왕 2년 2월에 고려에 왔다 간 사람으로 만약에 문천식이 위의 글을 북원에 전달했다면 북원이 그 뒤에 온 초르지로부터 고려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래도 당시 이인임 정권에서 취한 특토부하를 거부한 조치는 정세에 맞았다. 전임금이 살해되고 새로운 왕이 책봉도 못 받은 마당에 비록 허명에 그쳤더라도 특토부하를 왕으로 추대한다면 위험하였고, 무슨 계략을 써서라도 이를 막아야 하였다.

이보다 한 달 뒤인 1375년 5월 북원이 사신을 파견해 왔다. 그는 그 전에 (1374년 12월) 김서를 북원에 보내 공민왕의 상사를 알리자 북원에서 보내온 사신이였다.

이 사신이 가져온 글에 말하기를, '바얀테무르왕[공민왕]이 우리를 배반하고 명나라에 붙었기 때문에 너희 나라의 임금을 죽인 죄를 용서한다.' 하였다. 이때에 이인임과 지윤이 원나라 사신을 맞고자 하니, 三司左尹 金九容, 典理摠郎 李崇仁, 典儀副令 鄭道傳, 藝文應教 權近 등의 격렬한 반대에 봉착하여 사신은 개경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인임 등은 찬성사 黃裳을 서북면 도체찰사로, 左副代言 成石璘을 체찰사로 임명하여 江界로 파견하여 북원사신을 위로하여 되돌려 보냈다. 이 결과 이들이 고려에 와서 직접 특토부하의 왕위 계승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혼란을 예방하였다.¹⁹⁾

1375년 8월에 泥城 萬戶는 '심왕 母子가 반역자 金義와 進奉使 金潛의 무리를 거느리고 이미 信州에 도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고려가 두려워하여 여러 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북원의 내침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이 소식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때 압록강 이북에서 빈번히 약탈 사건이 발생하여 고려에서는 김의가 북원의 군대를 데리고 왔다고 의심하였는데 심왕의 군대가 아니고 난민임이 확인되었다.²⁰⁾

그 후로는 약 반년 동안 북원과 고려 사이에 사신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려는 우왕 2년 (1376) 2월 李原實을 보내 나가추를 방문하게 하였다. 같은 해 5월 북원에서 吳抄兒志(吳抄兒志)가 오니 우왕이 이를 후대하였다.²¹⁾ 명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북원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특토부하의 고려왕 옹립 문제도 풀리지 않아 우왕 즉위 자체도 불안정함을 느끼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 조정에서 나가추를 통해서 북원과

17)『高麗史節要』 권 30, 辛禡 원년 4월.

18) 池內宏, 앞에 나온 논문, 294面.

19) 盧啓鉉, 『高麗外交史』, 甲寅出版社, 1994, 635쪽.

20)『高麗史』 권 114, 列傳 27, 楊伯淵.

21)『高麗史節要』 권 30, 辛禡 2년 5월 庚午.

의 공식 관계 재개를 시도하였다. 이때까지 고려는 북원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북원에도 고려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그러나 나가추에게 사신을 보낸 지 며칠 뒤에 安州 부원수 王安德은 심왕이 죽었다고 보고하였다.

북원과의 외교관계 재개를 둘러싼 고려 관리들의 갈등은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으며, 당시의 정치세력을 친명파, 혹은 친원파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입장을 비판하면서 이 갈등은 단순히 외교관계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되지 않고 고려 국내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대립의 결과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무장들이 북원과의 외교관계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명이 고려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반명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고, 특히 명 사신 살해 사건으로 인해 명과의 외교관계가 수습하기 어렵게 된 사실과 북원이 특토부하를 고려왕에 책봉함으로써 고려를 군사력으로 위협한 상황을 지적하였다.²²⁾

북원과의 공식 관계 재개는 단순히 군사 충돌을 막거나 우왕 책봉을 받기 위한 행위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특히 당시 북원에서 고려를 군사적으로 압박한 일은 없었으며 북원의 군사가 고려 영토를 공격하려 왔다는 정보가 거짓이었음이 뒷날 밝혀졌다.

대체로 북원과의 관계 재개는 대내적 및 대외적이라든가 두 가지 목표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대내적으로는 당시 집권자였던 이인임 등이 그들의 집권을 지속하기 위해서 대외적 안정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하여 명에 대하여 한편으로 사신을 보내면서, 또 원과도 관계를 가져 양국 위협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였다.²³⁾

북원과의 관계 재개는 명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이인임은 명 사신살해사건과 연결시켜 원과 연고 있는 찬성 康舜龍, 지밀직 趙希古, 동지밀직 成大庸 등을 유배보내서 친명적 세력 비난에 대한 자신의 명분을 세웠다.²⁴⁾ 또한 이인임, 지윤 등을 명과 관계를 끊고 북원과의 관계를 재개하려고 한다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기를 청한 반대세력을 대거 숙청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인임 등은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여 대외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시행해 나갔다.

한편 북원과의 관계 재개는 대외적으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하겠다. 선학들이 지적한 우왕 책봉 등은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다. 사실 우왕 즉위 시점에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북원에 있어서는 토곤테무르가 대도에서 북쪽으로 피한 혼란기와는 정세가 많이 달라졌다.

북원은 1372년 명의 대규모 정벌군을 격파하고, 정국도 안정되었다. 한편 요동의 나가추도 1372년 牛家庄을 공격하여 요동의 명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운남에 있었던 북원 잔존 세력도 그대로 명에 대항하면서 버티고 있었다. 즉 1374년을 전후한 시기에 북원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비교적 안정을 되찾았다. 공민왕은 원이 곧 멸망한다고 판단하여 명과 사대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실제 상황은 추측과는 달리 돌아가고 있었다. 북원은 쉽게 무너질 존재가 아니었고 고려도 이를 실감하게 되었다.

약소국에 있어서는 국가를 지키는 방법은 강대국간의 세력균형을 잡기보다 효과적인

22) 金塘澤, 「高麗 禑王 元年 (1375) 元과의 외교관계 再開를 둘러싼 정치세력 간의 갈등」, 『震檀學報』 83, 1997.

23) 高惠玲, 「李仁任 政權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 第91輯, 1981, 24-25쪽.

24) Ibid. 20쪽.

방도는 없었다. 그러나 공민왕 말기의 고려 대외정책은 강대세력간의 균형을 잡지 못한, 바꾸어 말하면 북원을 배척하고 명측으로 치우친 극단적이었다. 원을 다만 배척할 뿐만 아니라 북원 영토에 대한 수차례의 정벌도 단행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명은 고려에 대해 좋게 간주하지 않았다. 명의 요동정벌에 대한 장려는 고려를 원을 궁지에 몰기에 이용하는 일시적인 방법이었지, 그들의 속셈은 완전히 달랐다.

요동의 북원세력이 무너지면 명의 다음 대상은 고려였다. 명은 1371년부터 요동경영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국제 상황의 변화를 고려의 집권자들이 알고 있었다. 특히 북원과 관계 재개를 이끌었던 이인임, 지윤, 최영 등 무장들은 북원과 손을 잡으면서 날이 거듭될수록 고려에 압박을 가해가는 억압적인 명을 견제하려고 방향을 바꾸었다. 그들은 명의 공격 등 비상사태가 생길 경우 북원의 군사 원조를 받아 항쟁하는 방법도 고려하였다.

고려의 북원과의 관계 재개는 명을 견제하려는 북원과 고려의 실질적인 필요성에서 비롯된, 당시 동아시아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인임 등 고려의 집권자들은 반대세력의 강대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원과의 관계 재개 정책을 고수하였다. 고려는 북원과 연합하여 명을 견제하거나 적어도 이를 통하여 명을 압박하여 양보하도록 만들고자 하였다.

2. 사대관계 재개 과정과 그 종말

1376년 7월 1년 반 전에 북원에 파견된 ‘판밀직사사 김서가 나가추의 영문에서 도망쳐 돌아왔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북원이 그를 볼모로 잡았을 가능성도 있다. 북원 조정은 고려에서 파견한 뭇초르지를 통해서 고려 정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었고, 이인임 등 집권자들의 본의를 알았다. 이것은 1376년 10월 북원에서 병부상서 부케테무르(孛哥帖木兒)를 파견하여 전달한 후호테무르(擴廓帖木兒)의 서신에서²⁵⁾ 확인된다.

그 서신에 당시 고려에 대하여 북원이 실시해 온 정책, 그간 양국 사이에 벌어진 일, 북원과 명과의 관계, 명나라의 본성이 무엇인가 등 중요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즉 후호테무르는 '우왕 아버지인 공민왕과 친하게 지냈음을' 언급하고, 계속해서 고려와 북원과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에서 사돈간으로' 되었으며, '공민왕이 죽은 뒤에 그는 자손이 없다고 하기에 우왕의 일가 사람으로 대를 이어 주기로 했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에 관한 조서를 전달하려는 사신을 파견했는데 고려에 가서 막혔고, 고려에서 과오를 뉘우쳐 깨닫기만 기다렸으며, 이제야 고려가 파견한 초르지를 통해 고려가 원나라를 배반하지 않았음을 알고, 바얀테무르왕에게는 아들 모니노가 있어 국사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라사람들이 왕자(즉 우왕)에게 복종한다 해도 아직 원나라 조정의 책명을 받은 바 없으므로 고려 인심의 동향도 그 지지와 반대가 아마 각각 절반씩 될 것이다'고 당시 고려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왕의 책봉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하며, 이를 풀어줄 주체는 북원이라고 깨우쳤다.

또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길 때 반드시 심임을 얻어야만 비로소 나라를 보존할

25)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禰 2년 10월

수 있다'고 타이르면서, '고려가 원나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꼭 주원장을 섬긴다면 그때 주원장은 고려를 집어삼킬 것이고, 고려가 아무리 대국을 섬기는 예를 극진히 하더라도 명은 고려의 재력을 빼앗고, 인민을 옮겨 가고, 社稷까지 고치는 등 무슨 지경에까지 이를지 알지 못할 것이다'고 하였다. 끝으로는 원나라는 '국토를 회복할 대계를 꾸미는 중이며 고려는 황제의 명령에 순응할 수 있다면 곧 군사를 훈련하고, 군마를 잘 먹이어 우리와 함께 적을 앞뒤로 견제함으로써 원나라의 中興 사업에 공헌하라!'고 하면서 '서신을 받고 하루 속히 사신을 보내면 원에서는 반드시 좋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설득과 위협을 동반하였다. 훗날 명과 고려와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볼 때 명의 본성에 대한 복원의 추측이 맞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서신에 양국관계에 대한 '사돈간의 관계'라는 재차의 언급은 복원은 쿠빌라이 시대에 맺어진 부마 관계라는 몽골 우위의 관계를 스스로 버리고 기황후의 모국으로써 고려를 사돈으로 인정하는 평등 관계로 격상시키고²⁶⁾ 복원은 고려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이러한 계책을 썼다.

그리고 1376년 10월 나가추도 右丞 九住를 파견하여 왔으며 고려에서 갔던 문천식을 돌려보내 왔다. 문천식은 공민왕 17년(1368) 10월 황태자의 생신을 축하하러 元에 파견된 사신인데 그가 8년 후에 고려에 돌아온 셈이다. 우승상 후흐테무르의 서신을 받은 고려 조정은 우왕 2년(1376) 10월 密直副使 孫彦을 북원으로 보내어 우왕의 왕위 계승 문제와 관련한 百官連名書를 북원 中書省에 보냈으며 거기에는 우왕이 공민왕의 遺旨로 즉위하였고 북원 황제의 책봉 조서가 내릴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렸다. 동년 10월 고려는 開城尹 黃淑卿을 나가추에게 보내 나가추의 사신 구주의 내방을 답례하였으며, 12월 나가추가 사신을 보내 은과 羊을 선물로 바쳤다.²⁷⁾ 다음 해인 우왕 3년(1377) 정월에 나가추가 사신을 보내 양과 말을 선물로 가져왔다. 그리고 2월 북원에서 翰林承旨 불라드(李刺的)을 파견하여 왕을 책봉하는 명령과 술과 海東靑을 가져왔다.²⁸⁾

북원의 우왕 책봉에 대해서 '기울어져 가는 북원로서는 특토부하를 끝까지 고려왕으로 밀고 나갈 힘이 없었으며 그러할 바에야 고려 권신의 요구대로 따라감으로써 고려의 환심이라도 얻어 두자는 계책이었다.'²⁹⁾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이때는 특토부하가 이미 죽은 뒤였기 때문에 사실 북원에는 고려국왕으로 내세울 만한 인물도 없었다.

이리하여 북원은 우왕 3년(1377) 2월에 우왕을 책봉하였으며, 이로써 공민왕 18년 이후 단절되었던 책봉-조공관계가 다시 성립되었다.³⁰⁾ 북원이 우왕을 책봉했을 때 또한 尹桓 등 6명에게 平章事 벼슬을 주었다. 이어 나가추는 문하라부하를 파견하여 친선을 도모하였고, 북원은 두메다이(豆爾達)를 파견하여 공민왕 신위에 제사를 지냈다. 북원이 고려에 이와 같은 환심을 베풀자 고려는 비로소 북원의 연호인 선광을 사용하였다.³¹⁾ 동시에 '내외의 옥사를 판결할 때 오로지 『至正條格』을 따르라!'³²⁾는 명을 내렸다.

26) 윤은숙, 「아유시리다라의 활동과 麗蒙 관계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및 몽골과학아카데미 공동주최 『한-몽 관계의 어제와 오늘』 2010 한·몽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울란바타르, 2010, 237쪽.

27)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2년 10월.

28)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3년 2월.

29) 盧啓鉉, 앞에 나온 책 (1994), 638쪽.

30) 김순자, 앞에 나온 책 (2007), 85쪽.

31)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3년 2월.

32) 『高麗史』 권 84, 志 38, 刑法 1, 職制, 辛禡 3년 조: “中外決獄一遵至正條格.”

1377년 3월에 고려는 三司左使 李子松을 복원으로 파견하여 왕의 책봉에 대한 사례의 글을 올리는³³⁾ 동시에 복원 황제를 비롯한 통치자들에게 예물을 보내었다.

또한 禮儀判書 문천식을 나가추에게 答禮使로 보내어 많은 예물을 주어 친선을 굳건히 다졌다. 나가추에게 보냈던 문천식이 6월에 복원으로부터 귀환한 다음에, 복원에 간 사은사 이자송도 돌아왔다. 이때 ‘원나라 조정 신하들은 이자송이 조복을 입고 예를 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 울면서, 「우리 조정이 북으로 옮긴 이후 군사 대열 사이에서 피곤하게 지낼 때에는 오늘 다시 예의를 보리라고 생각지도 못하였다」 고 하면서 심히 후대하였다고³⁴⁾ 한다.

고려국왕을 책봉하고 그 권신들의 환심을 샀다고 판단한 복원은 7월에 宣徽院使 체릭테무르(徹里帖木兒)를 고려에 파견하여 정료위 협공을 요청하였다.³⁵⁾ 이것은 복원으로서 중흥의 의지로서 강력한 제안이기는 하나 고려는 복원과 명에 대하여 양면외교를 구사했던 때이므로 이를 수락하기도 또는 반대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처지였다.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보다 잘 설득하여 시기를 연장하거나 그 제안 자체를 유야무야하게 만들려고 시도하였다.³⁶⁾ 우왕은 복원 사신에게 금띠와 안장을 얹은 말을 선물 주었으나 사신은 받지 않았다. 이것은 고려가 복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같은 해 8월에 고려는 啓稟使 晉川君 姜仁裕를 복원으로 보냈으며³⁷⁾ 姜仁裕는 9월에 복원에서 사람을 보내 그 동안의 사정을 알려 왔다. 그 정보는 평장 文典成과 大參政 張海馬는 나가추와 함께 군사를 조련하고 군마를 살찌우며 고려군이 오기를 기다려 정료위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³⁸⁾

이에 고려는 軍簿判書 문천식을 복원에 파견하여 날씨가 추운 겨울을 핑계로 하여 군대동원이 어렵다고 전하였다. 즉 군대동원을 정식으로 거절하지 못하고 연기 작전을 썼다. 그리고 고려는 11월에 黃淑卿을 복원으로 파견하여 동지 명절을 축하하고³⁹⁾, 12월에는 王昇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⁴⁰⁾ 같은 달에 나가추가 사신을 고려에 보내 羊 1백60 두와 毛牛 3두를 선사하였다.⁴¹⁾

그러나 정료위 정벌은 복원만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왜적이 全州에 침입하였을 때 都堂에서 원수 선택에 관하여 상의하였는데, 당시 집권대신의 하나였던 지윤은 '왜적은 단지 변방을 소란케 할 따름이니 그다지 우려할 필요 없다. 그러나 만일 명나라의 대군이 정료위에 근거지를 잡은 다음에는 반드시 공격하기 어려워지니 병력을 돌려서 요를 공격하는 것이 상책이다.'⁴²⁾고 주장하였다. 왜적의 전주 침입이란 1376년 9월 왜적이 전주를 함락시킨 일을 말한다. 이것은 복원에서 정료위를 협공하자고 제의하기 1년 전의 일이다. 따라서 지윤의 이 말은 고려의 집권자들이 복원과의 관계 재개를 시도하면서 명의 요동

33)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3년 3월.

34)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3년 6월.

35)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3년 7월.

36) 盧啓鉉, 앞에 나온 책 (1994), 639쪽.

37)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3년 8월.

38)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3년 9월.

39)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3년 11월.

40)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禡 3년 12월.

41) Ibid.

42) 『高麗史』 권 125, 列傳 38, 姦臣 1, 池瀛; 『高麗史節要』 권 30, 辛禡 2년 10월.

진출도 견제할 생각을 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한편 우왕 즉위 초부터 고려는 북원과의 관계 재개를 추진하는 동시에 1374년 말 명 사신 살해사건이 일어나면서 더욱 악화된 명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우왕 책봉을 받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명은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은 채 고려를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을 펼쳤다.

더욱이 1376년 8월 '정료위에서 가을에 고려를 침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정보를 취한 고려는 각 道에 사람을 파견하여 군대를 점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⁴³⁾ 정료위가 고려를 친다는 말은 사실이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 소식은 고려와 북원 관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당시 명은 국내문제에 급급하여 고려를 침략할 처지에 있지 않았는데다가 이보다 불과 2개월 전에 보낸 문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고려의 대응을 살피지 않고 서둘러 고려를 치기는 너무 성급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풍문에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명과 고려와의 관계를 조심하게 살폈던 북원이 당시 명과 고려와의 관계에 개선 경향이 보이자 이 풍문을 퍼뜨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376년 8월 이후 고려와 북원과의 우호관계가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가 북원과 사대관계를 맺자 명도 고려에 대하여 유화정책을 썼다. 1377년 12월에 명이 그 동안 억류했던 고려인 丁彦 등 358 명을 놓아 돌려보냈다. 그러자 고려는 1378년 3월 判繕工寺事 柳藩을 명나라에 보내 황제의 은혜를 사례하고 또 禮儀判書 周誼를 보내 공민왕의 시호와 왕위 계승의 책명을 요청하는 표문을 올렸다.⁴⁴⁾ 그리고 동년 6월에 고려 사신(行人)인 崔源, 全甫, 李之富 등도 석방하여 돌려보냈다.

한편으로는 1378년 (우왕 4년) 7월에 북원의 사신이 와서 투구스태무르(豆叱仇帖木兒)의 즉위를 보고하려 하니 우왕은 병을 핑계하고 마중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사신이 강요하므로 왕이 行省에 나가서 맞이하였다.⁴⁵⁾

동년 8월에 주의와 유번이 명나라로부터 귀환하였는데, 그들은 명나라 禮部商書 朱夢炎이 황제의 교지를 기록하여 고려 사람들에게 보여 준 글을 가져왔다. 이 문서의 주 내용은 명은 고려에 대하여 내정 간섭도 사신의 억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고려의 명에 대한 자세를 지켜본다는 뜻이 강한 것이었다.⁴⁶⁾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동년 9월에 고려는 명나라 홍무 연호를 다시 사용하였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북원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사용해 온 연호를 계속 쓰기가 어려워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려에 대한 명나라의 유화정책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고려가 홍무연호를 사용하여 친명태도를 보이자 명은 고려에 대한 유화정책을 예전과 같은 압박정책으로 바꾸어 나갔다.

고려는 1378년 10월에 沈德符를 명나라에 보내 새해를 축하하는 동시에 版圖判書 金寶生을 보내 최원 등을 돌려보낸 일에 대하여 감사를 표명하였지만 명의 고려에 대한 자세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강경노선으로 선회하였다. 1379년 정월 요동도 지휘사가 진무 任誠을 파견하여 홍무 3년 11월 고려군이 포로한 요양 지방의 官民 남

43)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禰 2년 8월.

44)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禰 4년 3월.

45) 『高麗史』 권 133, 列傳 46, 辛禰 4년 7월.

46) 盧啓鉉, 앞에 나온 책 (1994), 643쪽.

녀 1천여 명 및 고려에 도망해 온 명의 군사들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⁴⁷⁾ 그 이유는 고려가 군사를 보내 북원을 도와준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명의 고려에 대한 회의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원은 거의 1년만인 1379년 6월에 침원 甫非를 파견하여, 郊祀를 지내고 연호를 天元으로 개칭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나가추도 문하라부하를 고려에 보내 왔다. 우왕은 문하라부하가 돌아갈 때에 ‘승상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서로 형제라 칭하였다’고 하면서 저포와 마포 각 150 필씩을 주어⁴⁸⁾ 그들에게 친근감을 나타냈다. 또 고려는 동년 7월에 영녕군 王彬을 북원에 파견하여 교사를 지내고 연호를 바꾼 일을 축하하였다. 12월에 나가추가 매(鷹)와 양을 선물로 보내 왔다.

이처럼 고려는 명의 홍무 연호를 사용한 뒤에도 북원과 계속 통교하였다. 명과의 관계가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하였고,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고려로서는 북원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려가 명과의 사대관계를 회복하더라도 북원과 관계를 유지하는 양단정책을 고수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왕 6년 (1380) 영녕군 왕빈이 북원의 조서를 가지고 돌아왔으며, 같은 해 2월에 북원은 예부상서 時刺問, 直省舍人 大都閫를 파견하여 우왕을 太尉로 책봉하니 왕이 백관을 인솔하고 교외에 나가서 그들을 영접하였다. 3월에 고려는 밀직부사 문천식을 북원으로 보내 節日을 축하하고 책봉에 대하여 사례하였다. 동년 7월에 북원은 사신을 파견하여 대사를 반포하였으며, 나가추도 사신을 보냈다.

북원 사신왕래는 그 이후로부터 극히 줄어들었다. 나가추 사신이 마지막으로 우왕 9년 (1383) 1월에 고려에 왔으며, 옛날과 같은 우호관계를 가지자고 제의하였다. 북원 조정에서 고려에 파견한 사신은 마지막으로 1384년 10월에 和寧府까지 왔다. 고려는 호군 任彦忠을 보내 이 사신을 위로하고 타일러 돌려보내게 하였는데 교통이 두절되어 반년이나 두류하였다가 갔다. 그 후로는 북원과 고려 사이에 사신 왕래가 단절되었다. 그 이유는 1385년에 요동에 대한 명나라 경략의 시작과 관련되었다. 명은 나가추를 공격하기 전인 1384년에 나가추와 고려의 중간지점에 거주했던 여진부락을 공격하여 나가추와 고려의 연결을 차단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나가추 직할 영토를 경유해야만 고려에 왕래할 수 있었던 북원 중앙정부 사신에 있어서도 그 왕래가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재개가 가능한 잠재적인 상황에 있었다고 하겠다.

결론을 대신하여

공민왕을 계승한 우왕대부터 고려와 북원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고려는 다만 명과 사대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한동안 국교가 단절된 북원과도 관계 재개를 시도하였다.

고려에서 1369년 마지막으로 사신을 파견한지 5년만인 1374년에 북원에 告訃使를 파견

47) 『高麗史』 권 134, 列傳 47, 辛禰 5년 정월.

48) 『高麗史』 권 134, 列傳 47, 辛禰 5년 6월.

했음을 보면 양국 관계를 재개하는 요청은 고려가 처음 내세웠다. 일찍부터 고려와의 관계 재개를 시도했던 북원 측은 이러한 기회를 잘 이용해 나갔다.

고려의 북원과의 관계 재개는 명을 견제하려는 북원과 고려의 실질적인 필요성에서 비롯된, 당시 동아시아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인임 등 고려의 집권자들은 반대세력의 강대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원과의 관계 재개 정책을 고수하였다. 그 결과 우왕 3년(1377) 2월에 북원이 우왕을 책봉해 줌으로써 공민왕 18년 이후 단절되었던 책봉-조공관계가 다시 성립되었다. 북원이 고려에 이와 같은 환심을 베푸니, 고려는 비로소 북원의 연호인 선광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북원의 주목적인 명에 대한 공동작전 제안은 회피하였다. 고려는 북원과 명이라는 두 강대국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을 고수하지 않고 양국과 동시에 관계를 맺으면서 세력균형을 유지하여 실리를 도모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북원과의 사대관계를 이용하여 명을 압박함으로써 1378년 고려는 명으로부터 우왕의 책봉을 받았다.

이리하여 명과 북원 두 나라를 모두 사대의 대상국으로 인정한 관계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고려가 사대의 主對象으로 설정한 나라는 명이었다. 특히 명과의 관계가 재개된 우왕 4년 이후에는 고려는 북원과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명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삼고 있었다. 우왕 6년까지 북원과의 사신 교환도 북원을 사대의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두 나라에 모두 사대 형식을 취하는 것은 당시의 외교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었다. 고려의 북원과의 관계의 목적을 명의 과도한 공물 요구를 견제하고 新王인 우왕의 책봉 문제를 해결함에 있었다는⁴⁹⁾ 견해가 있다. 그러나 고려의 목적은 이 뿐만이 아니고 훨씬 큰 목적인 동아시아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의지였다. 즉 더욱더 강해지는 명의 세력 확대를 북원과 손을 잡음으로써 견제하는데 있었다고 하겠다.

반면 고려와 북원 간의 우호관계는 고려에만 유익한 것은 아니었다. 북쪽으로 물러나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북원에는 한 동안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고려와의 관계 재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고려와의 관계가 개선되면 고려와 연합하여 명을 협공하고 적어도 원 제국에 속했던 국가들이 외면한 당시에는 국가의 국제적 명예와 권위를 회복할 좋은 기회였다. 즉 군사적·외교적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북원에 있어서 고려와의 우호관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북원시기에 양국 간에 교환된 사신 횟수의 거의 1/5은 북원에서 고려에 파견된 사신이었던 사실에 보여준다.

우왕대 북원과 고려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고려가 최초로 북원과 전형적인 책봉-조공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다. 우왕 3년부터 2년간 지속된 이 관계는 원 간섭기에 비하면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보다 160여년 전 몽골과 고려관계가 성립될 때 고려가 원했던 관계의 형태였다고 하겠다.

49) 김순자, *앞에 나온 책* (2007), 87쪽.

참고문헌

I. 史料

鄭麟趾 등, 『高麗史』,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번역, 누리미디어.

『明史』, 北京, 中華書局, 1997.

『元史』 (A Mongolian translation from Chinese by Ch. Dandaa), Volume I-XXII, Foreword and textological study by Ts.Tserendorj, The Institute of History, The National Library of Mongolia., Ulaanbaatar, 2003-2004.

II. 저서

1) 한국어

김순자, 『韓國 中世 韓中關係史』, 혜안, 2007.

盧啓鉉, 『高麗外交史』, 甲寅出版社, 1994,

윤은숙, 『몽골제국의 만주 지배사』, 소나무, 2010.

2) 몽골어

Ч.Далай, Монголын түүх (1260-1388), УБ., Эрдэм, 1992.

III. 논문

1) 한국어

高惠玲, 「李仁任 政權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 第91輯, 1981.

金塘澤, 「高麗 禡王 元年 (1375) 元과의 외교관계 再開를 둘러싼 정치세력 간의 갈등」, 『震檀學報』 83, 1997.

윤은숙, 「아유시리다라의 활동과 麗蒙 관계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및 몽골 과학아카데미 공동주최 『한-몽 관계의 어제와 오늘』 2010 한·몽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울란바타르, 2010.

첵메드 체렝도르지, 「14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북원과 고려의 관계」,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0

許興植, 「高麗末 李成桂의 세력기반」, 『歷史와 人間의 對應: 高柄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한울, 1984.

2) 기타

池内宏, 「高麗末における明及北元との關係」 『史學雜誌』, 1917, 29-1, 2, 3, 4

Ts.Tserendorj, 「A royal rescript of Emperor Ayushridar of Mongolia to the Koryo king and some issu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ern Yuan and Koryo」, *Acta Historica*, No10, Mongolian State University of Education, Ulaanbaatar, 2009.